

新羅 초기의 사회성격에 대한 再檢討

尹 乃 鉉*

목 차

- I. 서 론
- II. 신라 건국기사료의 인식문제
- III. 신라 건국의 핵심세력
- IV. 신라 초기의 사회수준
- V. 결 론

I. 서 론

부여나 고구려·백제·가야 등 열국시대의 다른 나라에 비하여 신라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많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건국시기에 대해서는 통일된 견해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신라의 건국시기에 대한 한 가지 공통점은 그 건국연대를 『三國史記』나 『三國遺事』에 기록된 연대보다 늦게 잡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견해들은 신라 초기에 관한 『三國史記』나 『三國遺事』의 기록은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신라 초기에 관한 『三國史記』나 『三國遺事』의 기록을 불신하게 된 때는 다음 세 가지 요인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三國史記』의 기록에 의하면 신라의 건국 연대는 서기전 57년, 고구려의 건국 연대는 서기전 37년으로 고구려가 신라보다 늦게 건국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지난날에는 일반적으로 고대에 한민족은 북쪽의 대륙으로부터 선진문화를 수입하여 발전하였던 것으로 믿어왔다. 따라서 건국 연대도 북쪽에 위치했던 고구려가 당연히 신라보다 빨라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둘째는 신라 초기에 해당하는 시기의 기록인 『後漢書』 「東夷列傳」과 『三國志』 「烏丸鮮卑東夷傳」에 신라(당시의 명칭은 斯盧國)가 辰韓 지역에 있었던 여러 작은 나라 가운데 하나로

* 단국대학교 박물관장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한 상황은 『三國志』의 시대인 서기 3세기 후반까지 계속되었을 것이므로 신라의 건국연대가 이보다 앞설 수 없을 것으로 본 것이다.

셋째는 신라가 위치했던 지금의 경주 지역에서는 신라(초기의 국명은 斯盧國)가 처음으로 출현한 국가이며 그 이전에는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따라서 『三國史記』나 『三國遺事』에 기록된 신라의 건국연대는 근대 역사학에서 말하는 국가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원시적인 정치집단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따라서 신라의 건국을 그보다 늦게 잡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三國史記』나 『三國遺事』의 신라 초기에 관한 기록 가운데는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원시적인 정치집단으로 보기에 너무 수준 높은 내용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은 신라가 초기부터 국가 단계의 사회였다는 관점에서 보면 무리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신라 초기에 관한 사료의 불신은 신라 지역의 사회 발전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에 의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세계 어느 지역에서나 고대의 기록에는 불확실한 내용이 있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하여 그 시대에 관한 기록 모두를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 가운데 믿을 수 있는 사료를 찾아내어 그 시기의 역사 연구에 활용하는 것이 역사가의 임무이다. 그런데도 종래에는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의 신라 초기에 관한 기록에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그것들을 모두 불신하는 경향이 있었다. 신라 초기는 아직 국가 단계의 사회가 아니었을 것이라는 선입관이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종래의 풍조는 신라사 전공자들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시의 학문 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신라보다 앞서 있었던 古朝鮮이나 韓에 대한 연구가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신라 초기의 사회를 이들과 연관하여 설명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근래에 고조선이나 한에 대한 연구도 증진되었으므로 필자는 그러한 연구의 기반 위에서 신라의 건국과 초기 사회성격에 대해서 재검토하려고 한다.

II. 신라 건국기사료의 인식문제

신라의 건국 연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의 기록을 보면 『三國史記』 「新羅本紀」 <赫居世居西干>條에,

始祖의 성은 朴氏 이름은 赫居世였다. 前漢 孝宣帝 五鳳 元年 甲子 4월 丙辰날에 즉위하여 王號를 居西干이라 하였는데 그 때의 나이는 13세로서 나라의 이름을 徐那伐이라 하였다. … 高墟村長인 蘇伐公이 楊山 기슭 蘿井 곁에 있는 숲 사이를 바라본즉 말이 무릎을 꿇고 울고 있으므로 가서 보니 갑자기 말은 보이지 않고 다만 큰 알이 있을 뿐이었다. 그것을 깨뜨리니 (그 안에서) 어린 아이가 나왔다. 그래서 (蘇伐公은) 그 아이를 거두어서 길렀더니 나이 10여

세에 이르니 뛰어나게 영리하고 숙성하였다. 여섯 部 사람들은 그 아이의 출생이 이상하였던 까닭에 그를 높이 받들다가 이때에 이르러 그를 세워 임금으로 삼았던 것이다. 辰人들은 瓠를 차이라 하였는데 처음 큰 알이 瓠와 같았다 하여 차으로써 姓을 삼았다. 居西干은 辰人의 말에 왕이란 뜻이다.¹⁾

라고 하여 신라는 서기전 57년(前漢 宣帝 五鳳 元年)에 朴赫居世가 13세로 즉위함으로써 건국되었는데 처음에는 국명이 서나벌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三國遺事』 「新羅始祖 赫居世王」條에는,

前漢 地節 元年 壬子 3월 1일에 여섯 部の 조상들이 각기 자제들을 거느리고 關川 가에 모여서 의논하기를 우리가 위에 백성을 다스릴 군주가 없어 백성들이 모두 방일하여 제멋대로 하니 어찌 덕있는 사람을 찾아 임금으로 삼아 나라를 세우고 도움을 정하지 아니하랴 하였다. 이에 높은 곳에 올라 남쪽을 바라보니 楊山 아래 蘿井 곁에 이상스러운 기운이 電光과 같이 땅에 비치더니 거기에 흰 말 한마리가 꿇어 앉아 절하는 형상을 하고 있었다. 그곳을 찾아가 보니 하나의 붉은 알이 있었는데 말은 사람을 보고 길게 울더니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그 알을 쪼개어 어린 아이를 얻었는데 외모가 단정하고 아름답다웠다. 그 아이를 驚異하게 여겨 東川에서 목욕시키니 몸에서 광채가 나고 새와 짐승이 따라 춤추며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해와 달이 청명하였다. 그래서 그를 赫居世王이라 이름하였다. 그리고 位號를 居瑟邯이라 하였다.²⁾

고 하여 赫居世는 서기전 69년(前漢 宣帝 地節 元年)에 출생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위의 내용에서 朴赫居世가 알에서 출생했다는 것은 비과학적이기는 하지만 세계 어느 지역에서나 고대의 始祖 전설 또는 建國祖 전설에는 그들 조상의 출생을 신성화하기 위하여 수식된 비과학적인 요소가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따라서 박혁거세의 출생에 비과학적인 요소가 있다하여 다른 내용까지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위의 내용 가운데 우선 朴赫居世의 출생 연대와 즉위 연대에 관한 기록을 보면 『三國史記』에는 서기전 57년에 13세의 나이로 즉위하였다 하였고 『三國遺事』에는 서기전 69년에 출생하였다고 하였는데 서기전 69년과 서기전 57년은 13년의 차이가 있으므로 朴赫居世의 출생 연대와 즉위 연대에 관한 두 기록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신라의 건국조 박혁거세가 즉위한 연대는 서기전 57년으로 보는데 이의가 있을 수 없다.

여기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문제는 박혁거세가 즉위하던 당시의 신라 사회가 역사학에서

- 1) 『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 <始祖 赫居世居西干>條. “始祖, 姓朴氏, 諱赫居世, 前漢孝宣帝五鳳元年甲子, 四月丙辰即位, 號居西干, 時年十三, 國號徐那伐. … 高墟村長蘇伐公, 望陽山麓, 蘿井傍林間, 有馬跪而嘶, 則往觀之, 忽不見馬, 只有大卵, 剖之, 有嬰兒出焉, 則收而養之, 及年十餘歲, 岐嶷然夙成, 六部人, 以其生神異, 推尊之, 至是, 立爲君焉. 辰人謂瓠爲朴, 以初大卵如瓠故, 以朴爲姓. 居西干, 辰言王.”
- 2) 『三國遺事』 卷1 「紀異」 <新羅始祖 赫居世王>條. “前漢地節元年壬子三月朔, 六部祖各率子弟, 俱會於關川岸上, 議曰, 我輩上無君主臨理蒸民, 民皆放逸, 自從所欲, 盍覓有德人, 爲之君主, 立邦設都乎. 於是乘高南望, 楊山下蘿井傍, 異氣如電光垂地, 有一白馬跪拜之狀, 尋撿之, 有一紫卵, 馬見人長嘶上天, 剖其卵得童男, 形儀端美, 驚異之, 浴於東川, 身生光彩, 鳥獸率舞, 天地振動, 日月清明, 因名赫居世王, 位號曰居瑟邯.”

말하는 국가사회 수준에 도달했었느냐 하는 점이다. 종래에 일부 학자들은 당시의 신라 사회는 국가 수준의 사회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았다.

당시의 신라가 국가사회 단계에 이르지 못했을 것으로 보는 견해는 주로 『後漢書』 「東夷列傳」과 『三國志』 「烏丸鮮卑東夷傳」의 기록에 근거하고 있다. 『後漢書』 「東夷列傳」에 의하면 한반도 남부에는 韓이라는 나라가 있어 그 안에는 馬韓·辰韓·弁韓(또는 弁辰)이라 불리는 지역이 있었는데 마한에는 54國, 진한과 변한에는 각각 12國이 있어 모두 78國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³⁾ 그리고 『三國志』 「烏丸鮮卑東夷傳」에는 이들 78국의 명칭이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의 경상남북도 지역이었던 辰韓과 弁韓의 24국 가운데 斯盧國이 있었음이 확인된다.⁴⁾ 신라는 斯盧라고도 불리었다.⁵⁾ 그러므로 弁韓과 辰韓 지역의 국명 가운데 보이는 斯盧國은 그 위치로 보거나 국명으로 보아 신라 또는 그 전신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韓 지역에 있었던 78개의 國의 성격에 관해서 종래에 일부 학자들은 그들 하나 하나를 아직 국가사회 단계에 이르지 못한 독립된 작은 정치집단(학자에 따라서는 이를 君長社會라 부르기도 하고 小國이라 부르기도 한다)으로 보았다.⁶⁾ 그리고 『後漢書』는 중국의 東漢 시대(서기 23~220년), 『三國志』는 중국의 三國 시대(서기 220~265년)의 상황을 기록한 역사서이므로 斯盧國은 『三國志』의 시대인 서기 3세기 후반까지는 아직 국가단계의 사회에 진입하지 못한 작은 정치집단이었을 것으로 보았다.⁷⁾

이렇게 본다면 박혁거세는 작은 정치집단의 지도자로서 추장같은 존재였다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신라는 아직 국가사회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박혁거세의 즉위를 신라의 건국으로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적용한다면 신라의 건국은 물론 백제의 건국과 가야의 건국에 관한 기록이 모두 불합리한 것이 된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초기에 관한 『三國史記』의 기록들, 예컨대 영토확장 등에 관한 기록들도 모두 불합리한 것이 되고 만다. 『三國志』 「烏丸鮮卑東夷傳」에 의하면 韓 지역에는 78개의 國이 서기 3세기 후반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던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데 백제나 신라 또는 가야가

3) 『後漢書』 卷85 「東夷列傳」 <韓傳>. “韓有三種, 一曰馬韓, 二曰辰韓, 三曰弁辰. 馬韓在西, 有五十四國, … 辰韓在東, 十有二國, … 弁辰在辰韓之南, 亦十有二國, … 凡七十八國, 伯濟是其一國焉.”

4) 『三國志』 卷30 「烏丸鮮卑東夷傳」 <韓傳> ‘弁辰’條 참조.

5)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 <智證麻立干> 4年條. “여러 신하가 아뢰기를 ”始祖가 창업한 이래로 나라의 명칭이 일정하지 아니하여 혹은 斯羅라 하고 혹은 斯盧라 하고 혹은 新羅라 하였으나 …(群臣上言, 始祖創業已來, 國名未定, 惑稱斯羅, 惑稱斯盧, 惑言新羅, …).”

6) 金貞培, 1986. 「三韓社會의 ‘國’의 解釋問題」 『韓國古代國家의 起源과 形成』 (高麗大學校出版部) 223~240. 君長社會는 chiefdom society를 번역한 말인데 chiefdom society는 국가단계보다 앞선 사회단계를 말한다. 그런데 君長이라는 말은 중국인들이 이미 국가단계에 들어선 이민족 국가의 君主에 대한 호칭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君長社會는 chiefdom society와 동일한 뜻을 지닌 말이 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필자는 chiefdom society를 酋邦社會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7) 李鐘旭, 1982. 『新羅國家形成史研究』 (一潮閣), 255~258.

李鐘旭은 서기 3세기 말 경에 이르러서야 斯盧國이 신라로서 모습을 드러냈을 것으로 보았다.

이보다 앞서 주변의 나라들을 공략하여 영토를 확장했다는 것은 『三國志』의 기록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三國史記』의 기록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三國志』의 기록을 따를 것인가라는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종래에는 『三國志』가 『三國史記』보다 먼저 편찬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三國史記』를 불신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두 기록 모두 그럴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三國史記』의 편찬자들은 이미 출간된 『後漢書』 「東夷列傳」과 『三國志』 「烏丸鮮卑東夷傳」의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인데 그것과 상충되는 내용을 『三國史記』에 실었을 리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三國史記』와 『三國志』의 기록은 모두 진실을 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두 내용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필자는 『後漢書』 「東夷列傳」과 『三國志』 「烏丸鮮卑東夷傳」의 <序>에 기록된 다음 내용을 음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後漢書』 「東夷列傳」 <序>에,

(漢나라)가 中興한 이후부터 주변 이민족의 賓客이 왔는데 비록 때에 따라 어거거나 배반함은 있었지만 使臣과 驛馬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풍속과 풍토를 대략이나마 기록할 수 있게 되었다.⁸⁾

고 하였는 바 이는 중국인들이 이민족의 문물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된 것은 漢나라가 중흥한 이후부터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부터 고대에 중국인들의 이민족에 관한 지식은 불확실했을 수도 있고 상황이 변화된 후 늦게야 그 사실을 알았을 수도 있다.

『三國志』 「烏丸鮮卑東夷傳」의 <東夷傳> '序'는 그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준다. 즉,

『書經』에 “동쪽은 바다에 닿았고 서쪽은 사막에까지 이르렀다” 하였으므로 九服의 제도 이내에 있는 것은 말할 수가 있다. 그러나 荒域 밖은 여러 번의 통역을 거쳐야 이르게 되어 발걸음이나 수레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풍속이 중국과 다른 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虞나라로부터 周나라에 이르기까지 西戎는 白環을 바쳤고 東夷에서는 肅慎의 조공이 있었으나 모두 여러 해가 지나서야 도달하였으니 그 머나먼 거리가 이와 같다.⁹⁾

고 하였다. 고대 중국인들은 동쪽으로는 중국 동해, 서쪽으로는 사막에 이르는 지금의 중국 중심부의 풍속은 알고 있었지만 그 밖의 지역은 잘 알고 있지 못했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

8) 『後漢書』 卷85 「東夷列傳」 <序>. “自中興之後, 四夷來賓, 雖時有乖畔, 而使驛不絕, 故國俗風土, 可得略記.” 이 내용은 漢나라와 東夷의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漢나라가 중흥한 이후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9) 『三國志』 卷30 「烏丸鮮卑東夷傳」 <東夷傳> '序'. ‘書稱’ 東漸于海, 西被于流沙. 其九服之制, 可得而言也. 然荒域之外, 重譯而至, 非足跡車軌所及, 未有知其國俗殊方者也. 自虞暨周, 西戎有白環之獻, 東夷有肅慎之貢, 皆曠世而至, 其遐遠也如此.”

에야 그 지역에 관한 정보도 입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後漢書』 「東夷列傳」이나 『三國志』 「烏丸鮮卑東夷傳」의 내용도 이러한 시각에서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後漢書』 「東夷列傳」과 『三國志』 「烏丸鮮卑東夷傳」에 기록된 東夷에 관한 기록은 기본적으로는 중국의 東漢 시대와 三國 시대의 東夷 상황을 기록한 것이지만 그 이전에 있었던 사실을 그것이 이미 변화된 후에 기록한 것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後漢書』 「東夷列傳」과 『三國志』 「烏丸鮮卑東夷傳」의 東夷에 관한 기록 가운데 종교나 언어 등을 포함한 사회풍속은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당시까지 그대로 존속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영토나 정치적인 상황은 당시에는 이미 변화되어버린 그 이전의 상황일 수가 있다.

『後漢書』 「東夷列傳」과 『三國志』 「烏丸鮮卑東夷傳」의 기록 가운데 다음 내용은 그러한 변화된 상황과 신라의 건국 연대를 논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여 준다. 즉 『後漢書』 「東夷列傳」에서는 韓에 78개의 國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韓의 辰王(大王, 큰왕)이 78개 국을 모두 다스렸다고 하였다.¹⁰⁾ 그러나 『三國志』 「烏丸鮮卑東夷傳」에서는 韓에 78개의 國이 있었다고 말하고 그 명칭을 일일이 열거하면서도 韓의 辰王은 그 가운데 弁韓과 辰韓 지역에 있었던 12개의 國만을 다스렸다고 말하고 있다.¹¹⁾ 그렇다면 辰王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던 나머지 66개 國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에 대한 설명은 찾아 볼 수 없다.

『後漢書』 「東夷列傳」과 『三國志』 「烏丸鮮卑東夷傳」의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우는 것이 가능하다. 원래 韓에는 78개의 國이 있어 그들은 모두 辰王의 통치를 받았는데 그후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12개 國만이 辰王의 영역으로 남고 나머지 66개 國은 辰王의 통치에서 벗어나 독립국이 되었거나 다른 나라의 영역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三國史記』의 기록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된다.

『三國史記』에 의하면 『三國志』가 편찬되기 전에 韓 지역에서는 이미 신라·백제·가야가 건국되어 영토를 확장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韓의 영토는 줄어들기 마련이었고 중국의 三國 시대에 해당하는 시기에 이르러서는 韓의 영토가 크게 줄어들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後漢書』 「東夷列傳」과 『三國志』 「烏丸鮮卑東夷傳」의 내용 차이는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원래 韓에는 78개의 國이 있었는데 중국의 三國 시대에 해당하는 시기에 이르러서는 그 가운데 12개 國만이 韓의 辰王 통치 아래 있었고 나머지 66개 國은 신라와 백제·가야의 영토가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三國志』 「烏丸鮮卑東夷傳」에는 韓의 78개 국명이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三國志』가 편찬될 당시에는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신라나 백제·가야의 영토에 편입되어 이미 존재하지 않았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10) 『後漢書』 卷85 「東夷列傳」 <韓傳>. “韓有三種, 一曰馬韓, 二曰辰韓, 三曰弁辰. 馬韓在西, 有五十四國, … 辰韓在東, 十有二國, … 弁辰在辰韓之南, 亦十有二國, … 凡七十八國. … 馬韓最大, 共立其種爲辰王, 都目支國, 盡王三韓之地.”

11) 『三國志』 卷30 「烏丸鮮卑東夷傳」 <韓傳>. “弁·辰韓合二十四國, … 其十二國屬辰王.”

그러므로 신라의 건국 연대를 『三國志』의 시대인 서기 3세기 후반 이후로 내려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신라 지역은 원래 韓의 78개 渠帥國 가운데 하나인 斯盧國으로서 辰王之 통치를 받았으나 오래지 않아 독립국으로 출발하여 그 영역을 확장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다음 두 가지가 문제로 남는다. 하나는 『三國史記』에 기록된 신라의 건국 연대인 서기전 57년은 고구려의 건국 연대인 서기전 37년보다 앞서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建國期의 신라 사회가 역사학에서 말하는 국가사회 단계에 진입하여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Ⅲ. 신라 건국의 핵심세력

우선 신라의 건국 연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기 위하여 신라가 고구려보다 먼저 건국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가 라는 문제를 살펴보자. 『三國史記』에 고구려의 건국 연대는 서기전 37년, 백제의 건국 연대는 서기전 18년, 신라의 건국 연대는 서기전 57년으로 기록되어 있어 신라의 건국이 가장 앞섰던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 지난날 일부 학자들은 의문을 가졌었다. 고구려·백제·신라 가운데 가장 남쪽에 있었던 신라가 가장 북쪽에 있었던 고구려보다 앞서 건국되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한민족이나 한민족의 고대문화는 북쪽의 대륙으로부터 들어왔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성장도 북쪽의 고구려 지역이 남쪽의 신라 지역보다는 당연히 앞섰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따라서 신라가 고구려보다 먼저 건국되었다는 것은 문화 흐름의 대세로 보아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한 생각은 일반론의 시각에서 볼 경우 부분적으로 타당성을 지닌다.

왜냐하면 한민족의 활동 무대 가운데 남부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와의 접촉이 자유롭지 못하였고 북부는 육지로 대륙과 연결되어 있어 다른 지역과 접촉이 빈번하였다. 따라서 북부 지역이 남부 지역보다 외부로부터 자극과 영향을 많이 받아 문화의 발전이나 정치적인 성장이 빨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당연히 북쪽에서 국가가 먼저 출현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신라의 경우는 다르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고구려나 신라는 한반도와 만주에 등장했던 가장 이른 국가가 아니라는 점이다. 한반도와 만주에는 고구려나 신라에 앞서 고조선이라는 국가가 있었다.¹²⁾ 그러나 종래에는 고조선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고조선이 한반도와 만주 전 지역을 통치했던 국가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¹³⁾ 따라서 고구려나 신라는 그들이 위치하는 지역에

12) 윤내현, 1994. 「사회진화상의 고조선 위치」 『고조선 연구』 (一志社), 90~131.

13) 고조선의 영토가 한반도와 만주 전 지역이었음은, 윤내현, 「고조선의 강역과 국경」 『위 책』 (주 12) 170~306를 참조할 것.

처음으로 등장했던 나라였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러한 시각에서 고구려의 건국이 신라보다 앞서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고구려나 신라는 그 지역에 처음으로 등장했던 나라가 아니라 고조선이 분열되면서 일어난 나라들이었다.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고조선시대에 고구려는 고조선의 거수국으로서 지금의 遼西 서부인 灤河 유역에 있었다.¹⁴⁾ 그런데 고조선 말기에 지금의 遼西 지역에 西漢의 망명객인 衛滿에 의하여 衛滿朝鮮이 건국되어 영토를 확장하게 됨에 따라 고구려 주민들은 나라를 잃고 동쪽으로 이동하였는데 고조선이 붕괴되자 지금의 遼東에서 고구려라는 독립국을 세웠다.¹⁵⁾ 고구려인들은 이동과정에서 여러 곳으로 흩어졌는데 고구려를 건국한 핵심세력은 상당한 기간을 북부여에 의탁하여 있다가 지금의 遼東으로 이동하였던 것이다.¹⁶⁾ 따라서 고구려가 건국된 시기는 고구려인들이 이동을 시작한 시기로부터 상당한 세월이 지난 후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신라가 건국된 경주 지역은 고조선시대에는 고조선의 거수국인 韓에 속해 있었다.¹⁷⁾ 그런데 서기전 1세기 경에 고조선이 붕괴되자 韓은 독립국이 되었다.¹⁸⁾ 그리하여 韓의 辰王이 독립국의 국왕으로서 韓의 전 지역을 통치했던 것이다.¹⁹⁾ 그러나 고조선의 붕괴로 갑자기 독립국으로 출발하게 된 韓은 강력한 통치체제를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 따라서 사회가 혼란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라가 건국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신라의 건국이 고구려보다 뒤져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三國遺事』는 신라의 건국 배경을,

여섯 部の 조상들이 각기 子弟들을 거느리고 關川 가에서 모여서 의논하기를 우리가 위에 백성을 다스릴 군주가 없어 백성들이 모두 멋대로 행동하여 제맘대로 하니 어찌 덕있는 사람을 찾아 임금으로 삼아 나라를 세우고 도움을 정하지 아니하랴 하였다.²⁰⁾

고 전하고 있다. 고조선이 붕괴된 후 韓이 독립하여 한반도 남부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통치조직과 통치능력이 부족하여 사회가 혼란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라가 건국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신라 초기의 성격을 분명하게 알기 위하여 신라를 건국한 핵심세력은 어떤 사람

14) 윤내현, 「고조선의 국가구조」 『앞 책』 (주 12) 446~451.

15) 윤내현, 「列國時代의 開始와 그 變遷」 『傳統과 現實』 (高峰學術院) 第6號, 239~290.

——, 「高句麗의 移動과 建國」 『白山學報』 (白山學會) 第45號, 5~30.

16) 「윗 글」, 7~15.

17) 윤내현, 「앞 글」 (주 14) 『앞 책』 (주 12) 472~474.

18) 「앞 글」 (주 15) 참조.

19) 『後漢書』 卷85 「東夷列傳」 <韓傳>. “馬韓最大, 共立其種爲辰王, 都目支國, 盡王三韓之地.”

20) 『三國遺事』 卷1 「紀異」 <新羅始祖 赫居世王>條. “六部祖各率子弟, 俱會於關川岸上, 議曰, 我輩上無君主 臨理蒸民, 民皆放逸, 自從所欲, 盍覓有德人, 爲之君主, 立邦設都乎.”

들이었는지를 알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신라 건국에 관한 『三國史記』의 기록을 보자. 『三國史記』 「始祖 赫居世居西干」條에,

예전에 朝鮮의 남은 주민들이 山谷 사이에 나뉘어 거주하여 여섯 마을을 이루었는데 첫째는 關川楊山村이고 둘째는 突山高墟村이며 셋째는 觜山珍支村이고 넷째는 茂山大樹村이요 다섯째는 金山加利村이며 여섯째는 明活山高耶村인데 이들이 辰韓의 여섯 部가 되었다. 高墟村 長인 蘇伐公이 楊山 기슭 蘿井 곁에 있는 숲 사이를 바라본즉 말이 무릎을 꿇고 울고 있으므로 가서 보니 갑자기 말은 보이지 않고 다만 큰 알이 있을 뿐이었다. 그것을 깨뜨리니 (그 안에서) 어린 아이가 나왔다. 그래서 (蘇伐公은) 그 아이를 거두어서 길렀더니 나이 10여 세에 이르니 뛰어난게 영리하고 숙성하였다. 여섯 部 사람들은 그 아이의 출생이 이상하였던 까닭에 그를 높이 받들다가 이때에 이르러 그를 세위 임금을 삼았던 것이다.²¹⁾

라고 하였다. 위의 내용은 신라는 여섯 마을이 모여 이루어졌던 것으로 오해하기 쉽게 만든다. 그렇게 본다면 신라는 몇개의 마을이 모인 작은 집단일 뿐 국가규모의 사회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인용문은 關川楊山村·突山高墟村·觜山珍支村·茂山大樹村·金山加利村·明活山高耶村 등의 여섯 마을은 신라가 건국되기 이전에 이미 辰韓의 여섯 部였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 주민들은 원래 고조선 백성들이었다는 것이다. 『三國遺事』에도 이들이 辰韓의 여섯 部였다고 기록되어 있다.²²⁾ 여기서 우리는 두 개의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된다. 첫째는 신라를 건국한 사람들은 원래 고조선 백성들이었고, 둘째는 신라가 건국되기 전 이들은 辰韓의 여섯 部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다.

지난날 일부 학자들은 고조선을 한반도 북부에 있었던 작은 정치집단으로 보았기 때문에 신라를 건국한 사람들이 원래 고조선 백성들이었다면 그들은 당연히 북쪽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었다.²³⁾ 그러나 『三國史記』에는 그들이 ‘朝鮮遺民’ 즉 ‘조선의 남은 백성’이라고 표현했을 뿐 이주민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²⁴⁾ 근래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고조선은 한반도와 만주 전 지역을 통치했던 나라로서 신라가 건국된 경주 지역도 고조선의 영토였다.²⁵⁾ 그러므로 신라를 건국했던 사람들은 북쪽에서 이주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21) 『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 <始祖 赫居世居西干>條. “先是, 朝鮮遺民, 分居山谷之間爲六村, 一曰關川楊山村, 二曰突山高墟村, 三曰觜山珍支村, 四曰茂山大樹村, 五曰金山加利村, 六曰明活山高耶村, 是爲辰韓六部. 高墟村長蘇伐公, 望陽山麓, 蘿井傍林間, 有馬跪而嘶, 則往觀之, 忽不見馬, 只有大卵, 剖之, 有嬰兒出焉, 則收而養之, 及年十餘歲, 岐嶷然夙成, 六部人, 以其生神異, 推尊之, 至是, 立爲君焉.”

22) 『三國遺事』 卷1 「紀異」 <新羅始祖 赫居世王>條 참조.

23) 李丙燾는 고조선이 지금의 평양지역에 있었다고 보고 이 고조선의 遺民들이 남하하여 辰韓을 형성하였을 것으로 보았다.

李丙燾, 1980. 『國譯 三國史記』 (乙酉文化社), 1의 (주 4) 참조.

24) 주 21의 원문 참조.

25) 「앞 글」 (주 13) 참조.

고조선시대부터 그 지역에 거주했던 토착인들이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들은 원래 여섯 개의 마을을 이루고 살았는데 辰韓의 여섯 部가 되었다는 것이다. 『三國史記』에 의하면 部는 고구려·신라·백제에 모두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규모에 차이는 있었겠지만 많은 마을들로 구성된 큰 행정구역이었다. 그러므로 辰韓의 部도 각각 여러 개의 마을들로 구성되어 있었을 것이다. 위에 언급된 여섯 개의 마을은 각 部의 중심을 이루고 이를 대표했던 마을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여섯 마을 촌장 가문은 고조선 이래 그 지역에 정치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토착 명문거족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辰韓은 백제나 신라가 건국되기 전 韓나라의 일부로서 그 지역에는 12개 渠帥國이 있었다. 그 가운데 하나가 新羅의 전신인 斯盧國이었다. 여기서 渠帥國과 部는 어느 쪽이 더 규모가 큰 단위였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그것은 당연히 韓나라에서는 渠帥國이 部보다 규모가 큰 단위였을 것이다. 古朝鮮이나 韓나라에서 渠帥國은 지방정권으로서 중앙정권 바로 아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部는 渠帥國 내에 설치되어 있었던 행정구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던 것이 고구려나 사로(신라) 등과 같은 거수국들이 독립하여 영토가 확장되면서 部도 이전보다 큰 행정구역으로 변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신라를 건국한 辰韓의 여섯 部는 辰韓의 거수국들에 설치되어 있었던 많은 部 가운데 일부였는데 신라의 전신인 斯盧國 지역에 있었을 것이다. 이들 여섯 部 모두가 斯盧國에 속해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거수국의 部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는지는 지금으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신라는 辰韓의 여섯 部 면적의 영토를 가지고 출발했던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신라 건국의 핵심세력은 고조선시대에도 지금의 경주 지역에 살고 있었던 토착인들이었다. 그들은 고조선이 붕괴된 후에는 韓에 속해 있었던 辰韓의 여섯 部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들 각 部의 중심세력이었던 여섯 마을 씨족은 고조선 이래 그 지역의 명문거족이었다. 고조선이 붕괴된 후 韓이 독립국이 되었으나 사회의 혼란이 계속되므로 이들은 새로운 통치조직의 필요성을 느끼고 신라를 건국했던 것이다.

IV. 신라 초기의 사회수준

그러면 박혁거세가 즉위한 서기전 57년경의 신라 사회는 어느 단계의 사회였을까? 국가 사회 수준에 이르렀을까, 그렇지 못했을까?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신라가 건국되기 전에 앞서 이 지역은 韓의 영토였고 그 이전에는 고조선의 영토였다는 점이다. 고조선은 2,300여 년 동안 한반도와 만주 전 지역의 광대한 영토를 통치한 국가로서 존속하였고 고조선이 붕괴된 후에는 韓이 한반도 남부에서 그 뒤를 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신라는 그 지역에 처음으로 등장한 국가가 아니었다.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 처음

으로 등장한 국가는 고조선이었다. 그러므로 신라의 출현은 정확하게 말한다면 왕조의 교체였던 것이다. 단지 영토가 이전의 古朝鮮이나 韓보다 줄어들었을 뿐이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영토의 면적은 국가사회를 규정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점이다. 오늘날에도 영토가 아주 작은 국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역사 발전의 순리로 볼 때 기히 존재했던 국가의 뒤를 이은 나라가 국가 단계의 사회가 아니었다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합리하다.

그렇지만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우선 신라의 국명부터 검토해 보자.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신라는 韓의 辰韓 지역에서 斯盧國을 전신으로 하여 건국되었다. 그렇다면 신라는 어느 시기까지 韓의 거수국이었고 어느 시기에 독립국이 되었을까? 이 변화의 시점은 바로 신라의 건국 연대 즉 신라왕조의 개시 연대가 될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신라의 국명에 대해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三國史記』 「新羅本紀」 <智證麻立干> 4년조에,

群臣이 아뢰기를 “始祖가 창업한 이래로 국명이 일정하지 아니하여 혹은 斯羅라 하고 혹은 斯盧라 하며 혹은 新羅라 말하는데 신들의 생각으로는 ‘新’은 덕업이 날로 새롭다는 뜻이요 ‘羅’는 사망을 망라한다는 뜻인즉 그것으로 국호를 삼는 것이 마땅할 듯 합니다.”²⁶⁾

라고 하여 신라는 斯羅·斯盧·新羅 등으로 불리어졌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혼란을 없애기 위해 국호를 확정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위의 인용문 내용에 의하면 서기 503년(지증마립간 4년)에 ‘신라’라는 국명이 처음으로 확정된 듯 하지만 『三國史記』에는 이보다 앞서 서기 307년(基臨尼師今 10년)에 “국호를 다시 신라라 하였다”²⁷⁾는 기록이 보인다. 이로보아 신라는 서기 307년 이전에도 국호를 신라라 한 바가 있었으며 여러 번에 걸친 국호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호가 斯羅·斯盧·新羅 등이 혼용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²⁸⁾

그러므로 후대에 이러한 명칭들이 신라의 국명으로 혼용되었다 해서 이들이 처음부터 동시에 혼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그러한 명칭이 나온 순서가 있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朴赫居世居西干이 즉위하면서 국명을 徐那伐이라 했다²⁹⁾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신라 초기의 국명은 徐那伐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신라가 독립국이 되기 전의 韓 지역 상황을 전하는 『三國志』 「烏丸鮮卑東夷傳」에는 신라의 전신으로 斯盧國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26)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 <智證麻立干> 4년조. “群臣上言, 始祖創業已來, 國名未定, 或稱斯羅, 或稱斯盧, 或言新羅, 臣等以爲, 新者德業日新, 羅者網羅四方之義, 則其爲國號宜矣.”

27) 『三國史記』 卷2 「新羅本紀」 <基臨尼師今> 10년조. “復國號新羅.”

28) 斯羅·斯盧·新羅 등은 같은 의미를 지닌 말이라고 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음이 다른 명칭들이 처음부터 동시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29) 주 1 참조.

알 수 있다. 신라가 독립하기 전에는 그 지역에 韓의 거수국인 斯盧國이 있었는데 박혁거세 거서간이 독립국을 세우고 국명을 徐那伐이라 하므로써 신라가 출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라의 건국 연대를 박혁거세가 즉위하여 徐那伐이라는 국명을 사용한 서기전 57년으로 잡는데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종래에는 신라 초기 사회를 국가단계의 사회로 보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개 原始社會·部族國家·酋邦社會·城邑國家 등으로 보아왔다.³⁰⁾ 이러한 견해들 가운데 성읍국가로 본 견해를 제외하고는 신라 초기 사회를 국가단계의 사회로 보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성읍국가로 본 견해도 그것을 고대국가의 명칭으로 사용하고는 있지만 역사학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국가단계의 사회를 말하는 것 같지는 않다.³¹⁾

위의 견해들은 대개 奈勿麻立干(서기 356~401년)시대나 그 이후에 신라가 국가단계의 사회에 도달했을 것으로 보고 그 이전은 국가보다 낮은 사회 단계에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신라 초기 사회가 다소 수준높은 사회였던 것 처럼 기술된 서기 4세기 중엽 이전의 『三國史記』 기록은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취급하였다.

신라 초기 사회를 원시사회로 본 견해는 唯物史觀을 따르는 학자들에 의해서 제기되었다. 史的唯物論者들은 인류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국가단계 이전의 사회 단계는 원시사회였다고 보고 있으므로 신라가 내물마립간이나 그 이후에 국가단계의 사회에 진입하였다면 그 이전은 원시사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³²⁾

신라 초기 사회를 부족국가로 본 견해는 인류의 초기 사회는 씨족으로부터 부족으로 발전한다고 보고 신라의 초기 사회를 부족국가로 상정했던 것이다. 따라서 부족국가란 국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국가가 출현하기 이전의 부족사회를 말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용어를 사용한 학자들도 부족국가보다 훨씬 늦게 고대국가가 출현한 것으로 보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부족국가라는 용어는 국가 단계의 사회를 의미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³³⁾ 부족국가라는 용어는 국가의 기원에 관한 연구가 충분하게 이

30) 신라 초기 사회에 대한 종래의 견해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에 잘 정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기 바람.
李文基, 1990. 「新羅 上古期の 統治組織과 國家形成 問題」 『한국고대국가의 형성』 (민음사), 247~284.

31) 千寬宇는 斯盧(신라) 초기를 성읍국가 단계였다고 보면서도 사로(신라)는 5대 婆娑尼師今 때 영역국가로 출발하면서부터 고대국가로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이로보아 천씨는 성읍국가를 국가 단계의 사회로 보고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千寬宇, 1989. 『古朝鮮史·三韓史研究』 (一潮閣) 269·295 참조.

32) 武田幸男, 1981. 「朝鮮의 國家形成と 三國」 『新朝鮮史入門』 참조.

33) 金哲堧은 인류사회의 발전과정을 部族國家→部族聯盟→古代國家라는 도식을 설정하고 신라는 3세기 초에 부족국가 단계에 들어선 후 眞平王 때(서기 579~631년)에 고대국가가 완성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 견해를 따른다면 부족국가는 고대국가보다 훨씬 앞 단계의 사회였으며 신라 초기 사회는 아직 부족국가 단계에도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 된다.
金哲堧, 1964. 「韓國古代國家發達史」 『韓國民族文化史大系』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I-民族·國家史, 507~525.

루어지지 않았던 시기에 서양사학계에서 사용하고 있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었다.

신라의 초기 사회를 僭邦社會³⁴⁾로 본 견해는 초기의 신라 사회는 마을들이 연맹체를 형성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그 사회단계를 국가사회보다 앞선 단계인 추방사회로 본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인류사회 발전에 관한 근래의 이론인 新進化論에 따른 것이다. 그 이론에 따르면 인류사회는 무리사회(band society)·부족사회(tribal society)·추방사회(chiefdom society)의 발전과정을 거쳐 국가사회(state society)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신라 초기 사회는 아직 국가사회 단계에 이르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그 전단계인 僭邦社會로 상정한 것이다.³⁵⁾

여기서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추방사회라는 용어에 대한 개념을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추방사회란 영어의 chiefdom society를 번역한 것인데 국가사회가 출현하기 직전의 사회단계를 말한다. 학자에 따라서는 이를 僭長社會, 村落社會, 族長社會, 君長社會 등으로 번역한다. 그런데 추방사회라 할 경우 chief(추장)의 뜻은 전달되지만 dom(영역)의 의미는 전달되지 않는 약점이 있고 촌락사회라 할 경우 촌락은 마을을 말하는데 chiefdom은 마을연맹체사회로서 촌락사회보다는 규모가 큰 사회임으로 그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다. 족장사회라 할 경우 족장의 의미를 씨족장·부족장·종족장 등 여러 가지로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으며 군장사회라 할 경우 고대 중국인들은 이민족 국가의 통치자를 군장이라 불렀으므로 국가 이전의 사회단계만을 의미하는 chiefdom society와는 그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번역어가 필요한데 chief는 추장, dom은 그 영역을 의미함으로 추장을 의미하는 僭자와 국가보다는 작은 규모의 영역을 의미하는 邦자를 결합시킨 僭邦社會라는 말이 적합할 것이다.³⁶⁾

신라 초기 사회를 城邑國家로 본 견해는 부족국가라는 용어가 학술용어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나온 것이다. 국가기원에 관한 연구가 진전되면서 신진화론자들에 의하여 인류사회는 무리사회(band society)·부족사회(tribal society)·추방사회(chiefdom society)의 발전과정을 거쳐 국가사회(state society)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부족사회는 국가사회보다 훨씬 앞서 존재했던 사회로서 아직 국가단계의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족과 국가

34) 이러한 견해를 제출한 학자들은 僭邦社會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僭長社會·村落社會·君長社會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들은 chiefdom society를 번역한 말이다. 그런데 필자는 그러한 번역어들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필자가 사용하는 추방사회라는 말로 대체하였다.

35) 李鐘旭, 1982. 『앞 책』(주 7) 참조.

36) Kwang-chih Chang(張光直)은 일찍이 chiefdom을 僭邦으로 번역하여 사용하였으며 그 사회를 intervillage aggregate society(村落集合體社會 또는 村群社會)라 부르기도 하였다. 필자는 chiefdom의 번역어 문제에 대해서 Kang-chih Chang 교수와 충분한 의견 교환을 한 후 추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오고 있다.

張光直, 民國 68(1979). 「從夏商周三代考古論三代關係與中國古代國家的形成」, 杜正勝 編, 『中國上古史論文選集』(華世出版社) 314~317.

張光直 지음·尹乃鉉 옮김, 1989. 『商文明』(民音社) 456~457.

가 결합된 부족국가란 용어는 있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서양의 고대 국가가 도시국가였으므로 한국의 고대국가도 그러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도시를 한국의 고대문헌에 보이는 성읍으로 바꾸어 성읍국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던 것이다.³⁷⁾

그런데 고대 그리스와 같은 사회는 상업사회로서 여러 곳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상업하기 좋은 곳으로 모여들어 도시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국가로 발전하여 도시국가가 형성되었지만 한국이나 중국과 같은 농업사회는 각지역의 농업 마을들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연맹체(또는 집합체)를 형성하여 국가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신라의 초기 사회는 도시국가와 같은 성읍국가일 수가 없다.³⁸⁾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고대 서양의 도시국가는 국가단계의 사회를 말하는데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신라 초기 사회를 성읍국가로 보는 학자들은 당시를 아직 국가단계에 도달하기 전의 사회로 보고 있으므로 그 용어의 개념과 적용에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³⁹⁾

이상과 같이 종래의 견해들은 여러 가지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신라 초기의 사회를 국가단계의 사회로 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종래에 신라 초기사회를 국가사회 이전의 저급한 사회로 본 것은 두 가지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신라가 건국되기 이전의 한반도와 만주 사회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다는 점이고, 둘째는 국가사회에 대한 개념 정의가 분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날에는 고조선을 국가단계의 사회로 보지 않았고 그 영역도 한반도 북부 일부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한반도 남부에 인류사회가 형성된 것은 韓(三韓) 시대나 그보다 조금 앞선 시기였을 것으로 보았는데 그렇게 보면 초기의 인류사회인 韓은 당연히 저급한 단계의 사회였을 수밖에 없고 韓의 일부였던 辰韓에서 출발한 신라의 초기 사회도 저급한 단계의 사회일 수밖에 없다는 선입관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신라 초기 사회성격을 구명하는데 있어서 어떤 선입관이 작용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체의 선입관을 배제하고 신라 초기 사회를 검증하여 인류사회 발전과정에서 각 단계의 사회가 갖는 특징 가운데 어느 것이 합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옳은 연구방법일 것이다. 그러한 작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우선 인류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각 단계의 사회가 갖는 특징을 알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인류사회 발전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무리사회로서 이 단계의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떠돌이 생활을 하는데 구성원들이 완전히 평등한 사회였다. 사냥·고기잡이·그러모으기를 하며 생활하던 구석기시대가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 단계는 부족사회로서 이 단계의 사회에서는 혈연집단인 씨족이 불박이 생활에 들어가 마을을 이루게 되는데 구성원

37) 千寬宇 編, 1975. 『韓國古代史의 爭點』 (一潮閣) 187~234.

38) 신라의 초기 사회를 僭邦社會(그의 용어를 따르면 村落社會 또는 僭長社會)로 본 李鍾旭도 당시의 사회를 마을연맹체사회로 보고 있다(주 34 참조).

39) 주 30 참조.

들은 서열이 있는 평등한 사회였다. 농경과 목축을 하며 생활했던 전기 신석기시대가 이에 해당한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부족이라는 말은 인디언 사회에 대한 용어로서 그러한 용어가 한국사회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고대 사회에는 부족사회라는 말보다는 마을사회(또는 씨족마을사회)라는 말이 더 적합할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추방사회로서 이 단계의 사회는 여러 마을들이 연맹체(또는 집합체)를 형성하고 구성원 사이에 신분과 빈부의 차이가 일어난 계층사회로서 추장과 같은 지배자가 출현한다. 농경과 목축이 발달한 후기 신석기시대가 이에 해당한다. 네 번째 단계는 국가사회 단계로서 이 단계의 사회는 권력이 법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합법적 권력이 출현한 사회로서 대체로 청동기시대가 이에 해당한다.⁴⁰⁾

위의 사회 발전 과정에서 뒤시대는 앞시대의 사회에 존재하였던 요소들이 그대로 계승되어 양적으로 팽창되면서 위에 언급된 새로운 요소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각 사회 단계에서는 위에 언급되지 않은 다른 요소들도 보이지만 그것들은 주된 요소가 아니며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다. 따라서 위에 언급된 주된 요소가 확인되면 그 사회를 어느 한 단계의 사회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라 초기 사회는 어느 단계의 사회였을까? 『三國史記』 『新羅本紀』 <始祖 朴赫居世居西干>條에 의하면 신라를 건국한 중심세력으로 여섯 마을이 등장하는데 그 마을들은 신라가 건국되기 전 辰韓시대에 여섯 部였다고 하였다. 部는 하나의 마을이 아니라 여러 개의 마을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각 마을에는 촌장이 있었고 그들은 朴赫居世를 받들어 居西干으로 삼았는데 거서간은 왕이라는 뜻이었다.⁴¹⁾ 이로부터 신라 초기는 이미 마을연맹

40) 인류사회 발전에 관한 이론들과 그 적용문제에 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하기 바람.

윤내현, 1994. 「사회진화상의 고조선 위치」·「고조선의 국가구조」 『앞 책』 (주 12) 90~131·426~486.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국가사회에 대한 정의는 예나 지금이나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찍이 모오건은 문명사회를 '거주형태가 혈연결합에서 지역유대로 바뀌고, 공권력이 출현한 사회'라고 정의하였는데 엥겔스는 문명사회와 국가사회를 동일한 시대로 인식하여 위의 개념을 국가사회에 적용하였다. 그런데 근래에 학자들(신진화론자들 포함)은 공권력이라는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권력'이라는 말로 대체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위의 두 가지 요소는 유럽의 고대사회에는 합당하지만 동아시아 고대사회에는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즉 한국이나 중국과 같은 농경사회에서는 국가사회가 출현한 이후에도 거주형태는 씨족결합 즉 혈연결합을 유지하고 있었다. 국가가 출현한 이후에도 마을들은 씨족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동서양의 국가사회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은 합법적인 권력의 출현이라는 한 가지 요소 뿐인 것이다.

그리고 근래에 신진화론 학자들이 내놓은 무리사회·부족사회·추방사회·국가사회라는 인류사회 발전론은 지난날의 견해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더욱 구체화시킨 것이다. 모오건은 문명사회 이전을 문화발전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야만사회·미개사회로 두 단계로 나누었는데, 엥겔스는 이것을 경제면을 기준으로 하여 원시공동체라는 한 단계로 설정하였다. 이것을 신진화론자들은 사회생활의 성격을 기준으로 하여 무리사회·부족사회·추방사회라는 세 단계로 더 구체적인 구분을 한 것이다. 따라서 위의 어떤 이론들을 적용하더라도 국가사회 단계의 개념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41) 주 1 참조.

체 여러 개가 모여 형성된 사회였고 사회 신분에 차이가 있는 계층사회였던 것이다. 따라서 신라 초기 사회는 추방사회보다 낮은 사회 단계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라 초기 사회가 추방사회였는가, 그보다 발전된 국가사회였는가? 국가사회에는 추방사회의 요소가 대부분 존속되고 있다. 그것들이 양적으로 팽창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신라 초기 사회에 추방사회의 요소들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신라 초기 사회를 추방사회로 규정해서는 안된다. 신라 초기 사회가 추방사회였는가, 아니면 국가사회였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법이 존재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법의 존재 유무는 추방사회와 국가사회를 구분짓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라 초기 사회에 법이 존재했다는 기록은 찾아 볼 수 없다. 그렇다고 하여 법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한 사실이 반드시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전후 시기의 상황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後漢書』 「東夷列傳」과 『三國志』 「烏丸鮮卑東夷傳」의 <韓傳>에는 신라가 건국되기 전 辰韓과 弁韓에 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매우 준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後漢書』 「東夷列傳」 <韓傳>에,

弁辰 사람과 辰韓 사람들은 섞여 사는데 성곽과 의복이 모두 동일하지만 언어와 풍속에는 다른 점이 있다. 그 사람들의 형체는 모두 장대하고 머리칼은 아름다우며 의복은 깨끗하다. 그리고 형벌과 법은 준엄하다.⁴²⁾

고 하였는데 이와 동일한 내용이 『三國志』 「烏丸鮮卑東夷傳」 <韓傳>에도 실려 있다.⁴³⁾ 辰韓과 弁韓은 韓의 일부였으므로 韓 사회는 이미 준엄한 법에 의해서 통치되는 국가사회였음을 알게 해주는 것이다. 그 법이 준엄했다는 것은 상당히 발달한 법이 존재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서 그 사회가 초기 국가사회가 아니라 상당히 발달된 국가사회였음을 알게 해주는 것이다.⁴⁴⁾

그런데 고조선이 붕괴되기 전에 韓은 고조선의 渠帥國이었다.⁴⁵⁾ 고조선에 犯禁 8條의 법이 있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고조선도 법에 의해서 통치되는 국가사회였던 것이다.⁴⁶⁾ 그러므로 신라가 건국된 지역은 고조선시대에 비록 그 중심부는 아니었지만 이미 법에 의해서 통치되는 국가단계의 사회였고 고조선이 붕괴되어 韓이 독립국이 된 후에는 법이 한층 준엄해진 발달된 국가사회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뒤를 이은 신라는 당

42) 『後漢書』 卷85 「東夷列傳」 <韓傳> 「弁辰」條. “弁辰與辰韓雜居, 城郭衣服皆同, 言語風俗有異. 其人形皆長大, 美髮, 衣服潔清. 而刑法嚴峻.”

43) 『三國志』 卷30 「烏丸鮮卑東夷傳」 <韓傳> 「弁辰」條. “법과 풍속은 특별히 준엄하다(法俗特嚴峻).”

44) 고조선 건국 이전부터 고조선의 붕괴로 韓이 독립국이 된 이후까지 韓 지역의 사회변천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할 것.

尹乃鉉, 1988. 「三韓지역의 사회 변천」 『白山學報』 (白山學會) 第35號, 71~137.

45) 윤내현, 1994. 「고조선과 한의 관계」 『앞 책』 (주 12) 487~526.

46) 주 12 참조.

연히 법에 의해서 통치되는 국가사회였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라는 건국 초부터 국가사회였기 때문에 『三國史記』에 기록된 건국 연대를 부인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 건국 연대는 정확하게 말하면 왕조의 교체 연대인 것이다.

여기서 고조선이 한반도 남부의 韓 지역까지 통치했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라가 초기부터 국가사회였다는 필자의 논리에 변화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신라의 전신인 辰韓에 준엄한 법이 존재했었다는 『後漢書』와 『三國志』의 기록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신라 초기를 수준 높은 사회로 기록한 『三國史記』의 내용을 의심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국가사회는 대체로 세계 어느 지역에서나 청동기시대에 출현하는데 신라가 건국된 서기 전 1세기의 한반도와 만주는 이미 청동기시대를 지나 매우 발달된 철기시대에 이르러 있었다. 따라서 발달된 국가사회 단계에 이르렀을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러한 고고학적인 결과는 문헌 기록을 통해 본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끝으로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일부 학자들에 의하여 왕호의 사용·왕실의 구성·왕명의 특징·통치조직 등을 근거로 신라의 국가사회 진입시기를 밝혀보려는 노력이 행해진 바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국가사회를 특징짓는 주요소가 아니라는 것이다. 왕호 사용이나 왕실의 구성 또는 왕명의 특징이 사회성격과 반드시 관계를 갖는 것도 아니며 통치조직의 정도가 국가사회를 규정짓는 것도 아니다. 예컨대 중국에서는 秦帝國 이전에는 통치자를 왕이라 하였고 秦帝國 시대부터는 황제라 하여 통치자의 칭호가 달랐으며 戰國 시대 초기에는 독립한 여러 나라가 아직 왕호를 사용하지 않고 이전에 사용하던 제후의 작위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이들을 모두 국가로 보는데 이의가 없다. 그리고 商나라나 周나라의 경우 통치조직의 중요한 요소인 정부조직이나 관료제도가 아직 자세하게 밝혀지지 못한 상태이지만 이들도 국가사회로 인정받고 있다.

V. 결 론

지금까지 필자는 신라의 건국과 관계된 『三國史記』·『三國遺事』·『後漢書』·『三國志』 등의 기록을 분석하여 신라 건국의 핵심세력과 건국 연대 및 신라 초기의 사회 성격 등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로 얻어진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종래에는 신라를 건국한 핵심세력은 북쪽으로부터 이주해 온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보았으며 『三國史記』에 기록된 신라의 건국 연대에 대해서도 고구려보다 앞선다는 이유 때문에 그 신빙성에 의문을 품는 학자들이 많았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신라 초기 사회를 역사학이나 인류학이 말하는 국가사회 단계에 이르지 못한 낮은 사회단계였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러한 견해들은 잘못된 것임이 밝혀졌다. 신라를 건국한 핵심세력은 다른 지역으

로부터 이주해 온 사람들이 아니라 고조선시대부터 이미 경주를 중심으로 경상북도 지역에 살고 있었던 토착인들로서 그 지역의 명문거족이었다. 그들은 고조선이 붕괴된 후 韓의 일부인 辰韓의 여섯 部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고조선의 붕괴로 인하여 사회 혼란이 계속되자 자신들의 지역에서나마 이를 바로잡을 필요성을 느끼고 신라를 건국했던 것이다.

신라와 고구려의 건국과정을 보면 두 나라는 모두 고조선의 붕괴가 가져온 혼란속에서 건국되었지만 신라는 그 지역 토착인들에 의해서 건국된 반면 고구려는 지금의 遼西 서부 灤河 유역으로부터 이주해 온 고구려족에 의해서 지금의 遼東 지역에서 건국되었다. 따라서 고구려는 신라보다 오랜 건국 준비과정을 필요로 했던 것이다. 이러한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신라의 건국이 고구려보다 앞선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따라서 『三國史記』에 기록된 신라의 건국 연대인 서기전 57년은 그대로 믿어도 좋으리라 생각된다. 여기서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서기전 57년에 출발한 신라 사회가 처음부터 역사학이나 인류학에서 말하는 국가단계의 사회였느냐 하는 점이다. 종래에는 한반도와 만주를 지배했던 古朝鮮이나 고조선의 뒤를 이어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던 韓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게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신라 이전의 한반도 사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고 그 결과 신라 이전의 사회는 미개했을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신라 초기는 인류사회 진화 과정의 초기 단계에 해당했을 것으로 상정하였기 때문에 국가단계의 사회로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한반도와 만주 전 지역을 통치했던 고조선은 이미 국가단계의 사회였고 한반도 남부에서 그 뒤를 이었던 韓은 준엄한 법으로 통치되었던 발달된 국가사회였다. 그렇다면 그 뒤를 이어 韓의 辰韓 지역에서 건국되었던 신라가 국가단계의 사회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신라는 한반도에 처음으로 출현했던 국가가 아니라 앞서 출현했던 국가들의 뒤를 이은 나라로서 엄격하게 말하면 신라의 건국은 왕조의 교체를 의미하는 것이다.